



화단 및 조경용 층꽃나무 재배기술

△ 층꽃나무 꽃길

매년 이맘 때쯤이면 시골의 마을 어귀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꽃이 있다. 하얀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에 춤까지 추면서 향기를 선사하는 구절초, 키가 아담하면서 깨끗한 보라색 꽃을 마디마다 계단을 이루며 예쁘게 피어 방문객을 환영해주는 층꽃나무가 바로 이들이다. 층꽃나무는 꽃이 달리는 모양이 층을 이루어 특이하고 키가 너무 크지 않아 화단 전면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 종자부터 개화까지 당년에 가능하다는 점 등 화단 및 조경용으로써 훌륭한 특성을 겸비하고 있다. 층꽃나무는 지방에 따라 층꽃풀, 난향초 따위로 부르기도 하며, 영명은 Common Bluebeard 라고 부른다.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종류 및 생리생태

층꽃나무는 마편초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관목으로 분류되지만 변식이나 재배습성은 거의 영년생 초본류처럼 자란다. 층꽃나무의 학명은 *Caryopteris incana*이다. 이 *Caryopteris*에 속하는 식물은 지구상에 6종이 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자생지 환경은 건조한 곳에서부터 숲속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는 3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층꽃나무와 꽃이 흰 흰 층꽃나무는 주로 남부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강한 냄새가 나는 누린내풀은 다년초로써 분포지역이 넓다. 가을에 개화되는 초화류들처럼 일장 즉



▲ 층꽃나무



▲ 흰층꽃나무

층꽃나무는 특별한 변이가 없어 실생으로 묘를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는 늦은 가을에 잘 익은 것을 받아서 저온 건조저장해 두었다가 이른봄에 하우스 같은 곳에서 뿌린다. 종자를 뿌리기 전에는 충실한 것을 잘 골라(염수

단일에 의해 화아분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양지를 좋아해 음지에 약하며 추위나 공해에도 약하다. 번식력이 좋아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도 빠른 편이다. 종자는 11당 30만립으로 극미립종자에 속한다. 종자의 휴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늦가을에 종자를 받아 건조저장해 두었다가 이른봄에 뿌리면 당년에 꽃이 핀다.

2. 번식 및 재배

번식은 씨앗을 뿌리거나 포기나누기로 한다.

선 방법 등) 사용해야 한다. 씨앗은 별도의 파종 상자나 육묘용 플러그트레이에 뿌린다. 트레이에 뿌릴 때는 셀당 2-3립씩 뿌린 뒤 나중에 발아되면 좋은 것 한 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준다. 파종후 2-3개월 지나면 본엽이 4-5매가 된다. 이때 충실한 묘들을 골라 포트에 옮겨 일반관리에 들어간다. 보다 충실한 포트묘 생산을 위해서는 포트에 이식할 때 건강한 묘를 써야 하며 포트당 3-4주씩 심는다. 포기나누기는 3-4년에 한번 주기로 할 수 있는데 시기는 3-4월이 적합하다. 서양에서는 늦은 봄에 뿌리가 부드러워졌을 때 근

표 1. 층꽃나무의 파종기별 성장 반응

(1995, 전남농업기술원)

파종기 (월. 일)	초장 (cm)	줄기두께 (mm)	가지수	가지길이 (cm)	꽃대길이 (cm)	화단수	생체중 (g)
2. 15	100	21.6	24.5	95.4	22.4	7.1	761
3. 15	97	20.1	22.1	83.7	24.0	6.6	568
4. 15	93	18.9	22.3	85.6	25.7	7.3	529
5. 15	74	15.2	18.2	63.3	23.2	6.4	288

표 2. 층꽃나무의 파종기별 개화반응

(1995, 전남농업기술원)

파종기 (월. 일)	꽃봉오리 출현일	개화기	개 화 소요일수	꽃가루 출현일
2. 15	7.26	9.1	198	9.8
3. 15	8.6	9.4	172	9.10
4. 15	8.8	9.5	143	9.10
5. 18	8.9	9.5	113	9.10

화단 및 쓰정용 층꽃나무 재배기술



표 3. 단일처리가 총꽃나무의 개화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1996, 전남농업기술원)

처 리	초장 (cm)	경경 (cm)	분지수 (개/주)	분지장 (cm)	꽃대길이 (cm)	꽃수 (개/분지)	출뢰시 (월.일)	개화시 (월.일)	개화기 (월.일)	개화종 (월.일)
자연일장	96	15.2	23	77	27	8	8. 1	8.26	9. 9	10.12
6. 15~출장기	40	8.3	10	38	15	5	6.28	7.12	7.20	8. 3
7. 1~출뢰기	42	8.5	15	49	19	7	7.10	7.23	8. 1	8.17
7. 15~출뢰기	42	8.9	17	52	20	7	7.17	8. 2	8.10	8.20

※ 단일처리에 의한 개화후 자연일장과 동일하게 2차개화

표 4. 장일처리가 총꽃나무의 생육 및 개화에 미치는 영향

(1996, 전남농업기술원)

처 리	초장 (cm)	경경 (cm)	분지수 (개/주)	분지장 (cm)	꽃대길이 (cm)	꽃수 (개/분지)	출뢰시 (월.일)	개화시 (월.일)	개화기 (월.일)	개화종 (월.일)
자연일장	96	15.2	23	77	27	8	8. 1	8.26	9. 9	10.12
7. 1~ 8. 15	96	14.4	22	83	18	5	9.13	9.23	10.10	10.30
7. 1~ 9. 15	95	15.7	25	87	13	4	10.10	10.25	11. 9	11.23
7. 1~10. 15	96	16.5	27	88	10	4	11.10	11.23	12.12	12.20

삼을 하거나 초여름에 줄기가 한창 자랄 때 녹지 삼을 해도 발근이 잘 된다고 한다.

표 1, 2는 총꽃나무를 화단용이나 분화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파종기를 달리하여 생육 및 개화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본 실험결과, 총꽃나무는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때 성장량은 파종기가 빠를수록 많아 관상가치를 생각하면 가능하면 빨리 파종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표 3, 4는 총꽃나무에 일장처리를 하여 생육 및 개화반응을 살펴 본 것이다. 먼저 단일처리실험 결과(표 3), 자연조건에 둔 것은 8월 하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으나 6월 1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출뢰기(꽃봉오리가 나올 때)까지 인위적으로 단일처리를 해 준 것들은 개화기가 크게 단축되었다. 즉 6월 15일부터 출뢰기까지 단일처리 해준 것들은 꽃이 7월 12일부터 피기 시작하여 자연조건보다 약 2주이상 빠라졌음을 알 수 있다. 단일처리로 개화기가 빨라진 개체들은 이후 자연조건에서 다시 2차 개화가 진행되었다.

장일처리실험 결과에서는 앞의 단일처리와는 반대로 개화가 약 1~3개월이 늦어졌다. 즉 자연

조건에서 한창 화아가 분화될 시기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장일처리 해준 것은 9월 13일부터 꽃이 피기 시작함으로써 자연조건의 8월 1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이후 장일 처리기간에 따라 꽃피는 시기가 11월 23일부터로 최장 3개월까지 현저하게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총꽃나무는 일장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조건에서는 9월초가 개화기이지만 8월 초부터 12월초까지 개화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밖에 재배환경으로 토양은 거름기가 좀 있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한다. 음지에서는 생육이 매우 불량하다. 정원이나 화단용으로 심을 때는 한 두 그루씩 따로 심는 것보다는 군락으로 모아서 심는 것이 좋으며 암석정원 같은 곳에서 바위 틈에 심어도 잘 어울린다. 꽃이 달리는 모양이 특이하여 꽃꽂이 소재로도 이용되는데, 이 경우 꽃 떨어짐 현상이 심한 것이 흠이다. ☀